명곡 다시 부르기 열풍 분다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2일 수요일 제3005호 www.metroseoul.co.kr

윤석민 부상 복귀시점 불투명

민선 6기 힘찬 스타트! 1일 오전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을 열고 민선 지방자치 6기의 출범을 알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과 포옹하고 어깨를 주무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근 회관예식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책상 치고 감전한 도정을 이끌겠다는 취임 선서를 했다. /손진영기자 연합뉴스

통신·카드사 '휴가 서비스' 뜨겁다

바캉스를 맞아 통신사와 카드사들이 여름 서비스로 고객잡기에 나섰다. 상반기에 개인정보유출과 영업정지로 진통을 앓았던 업계는 여름 대목을 계기로 수익성 강화와 함께 이미지 쇄신도 꾀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해외여행객의 20%는 7~8월에 몰릴 정도로 여름은 여행 성수기다. 업계는 저가 항공사 증편과 취항 도시 증가가 올 여름 해외 여행객 수 최대치 기록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통신 업계의 로밍 서비스 상품 개발은 숙명이 됐다. 로밍 서비스는 여행 요금제 개념에서 진화해 각종 제휴와 알뜰 이벤트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은 대한항공과 함께 '대한항공 엑셀런티 T로밍' 요금제를 선보였다. SK텔레콤 고객이 대한항공 탑승기로 미국·중국·일본을 여행하면 요금제 비가입 시보다 최대 79% 할인된 가격으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진에어 제휴를 통해 '진에어 딜라이트 T로밍'도 출시했다. 이용환 SK텔레콤 제휴마케팅본부장은 "항공과 통신은 해외 여행객이 필수로 이용하는 연관 산업으로 상호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아시아나 항공과 손 잡았다. '아시아나 무제한 데이터 로밍'을 이용하면 110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 로밍을 사용하면서 항공사 마일리지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요금제는 아시아나 항공 100마일리지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김준형 LG유플러스 디바이스 담당 상무는 "해외 여행 고객을 위해 로밍과 항공 서비스를 결합한 '에어 로밍스 (Airline+Roaming) 형태'라고 설명했다.

뛰는 로밍요금제 공세 카드할인 경쟁적 도입

수익 강화·이미지 쇄신

KT는 데이터 로밍 무제한 서비스 제공 국가를 최다 수준인 143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여행객이 많은 20개국을 대상으로 음성통화요금을 33% 할인하는 '음성로밍할인 2만원권'도 내놓았다. KT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회원들에게 일등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10일까지 벌인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할인도 쟁쟁

카드업계도 휴가철 고객 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카드와 하나SK카드는 제휴된 해외 항공권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준다. NH농협카드는 국내선과 국제선 할인 서비스를 시작하며 한국씨티은행은 해외 사용 금액에 대한 포인트를 적고 2배 적립해준다. KB국민카드는 이용 고객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의 휴가비를 증정하는 바캉스 이벤트를 편다.

카드사의 여행 사이트 할인도 있다. 신한카드는 올댓여행, 현대카드는 프리비아, 하나카드는 스마트 여행 서비스 관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며 여름철 고객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경품을 증정하고 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국내 여행객을 위한 최대 수혜주다. 삼성카드와 비씨카드는 다음달 말까지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등 국내 워터파크 입장권을 30~40%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현대카드는 서울랜드와 에버랜드 이용가의 50%를 M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게 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 5월 항공 여객 실적은 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5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국내선 여객은 감소해도 국제선 여객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 여름에도 해외 여행객이 증가에 관련 소비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희 백아란기자 unique@metroseoul.co.kr

아파트도 소방훈련 의무화

공동주택이나 사무용 건물의 일반 입주자에게 소방훈련이 의무화되고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의무화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방재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도형기자 mkmb

더 완전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수영 업무목 이주영 장관 진도에 머무르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영을 인수목하게 기른 채 1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7·30 재보선 판 흔들린다

김문수 불출마 결심·이혜훈 공천 철회·여권발 이상 기류

'별들의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7·30 재·보선의 판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의 유력후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울산 남구을에 도전했던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공천신청을 철회했다. 새누리당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평택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에 심사에서 탈락했다. 3선 의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그가 선거에 패할 경우 현 정부심판론이 증폭되면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조용한 선거로 재·보선 관심도를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출마 의사가 강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 수도권 '빅카드' 대전 가능성은 유효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여당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재·보선 전략 수정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수원 팔달 출마 쪽으로 흐름이 잡히고 있는 손학규 상임고문 정도를 빼고는 투보추천장을 순탄하게 거머쥘지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작을 등을 염두에 둔 정동영 상임고문은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 김포을에 출전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전략공천 티켓'을 확보할지 다소 불투명하다.

/김학성기자 minkim@metroseoul.co.kr

16년째 KT고객 '굿초이스' 결과는?

기자 수첩

서 승 희 <경제산업부 기자>

16년 째 KT의 고객인 S씨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5만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 그녀는 고객센터를 통해 요금제 변경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선택할 수 있는 안이 표준요금제 외엔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발단은 약 2년 반 전 KT의 2G서비스 종료에서 비롯됐다. 당시 KT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할당한 1.8GHz 대역의 주파수 입찰에서 실패한다. 이로써 KT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제한된 주파수를 15만 명의 2G고객을 지키기 위해 쓰느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느냐. KT의 결정은 후자였다. KT는 이를 위해 자사 유선전화를 고의로 끊는 등 부당행위를 저질러 고객들의 공분을 산다. 그 뿐이 아니다. 2G서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던 고가의 유료 서비스도 KT의 일방적인 통보로 한 순간 무용지물로 전락한다. 당시 KT와 현대·기아차가 제휴를 맺고 판매한 안내 서비스 '모젠'이 그 대표적인 예다.

KT는 이후 특가 단말기 등 혜택이 있는 자사 3G로의 전환과 경쟁사로의 번호이동을 2G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고객들에게 선택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KT는 "3G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KT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에게 요금, 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다.

SK텔레콤와 LG유플러스는 KT에 없는 음성통화요금제만 해도 각각 8, 7가지씩 갖추고 있다. 슬림, 표준, 신표준의 3가지 요금제가 십수년 KT를 '굿초이스'한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인지 반문하고 싶다.

뉴스&뉴스

한중 정상회담 후 '부속문서'도 채택

● 한중 양국이 3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과 함께 양국간 포괄적 협력 내용을 담은 별도의 부속문서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일 "한중간 협력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담기 위한 포괄적인 문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전략 대화를 강화하고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재취업 퇴직공직자 사퇴 유도

● 해양수산부는 1일 이른바 '해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안전부문 산하기관 및 단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산하기관 지도·감독 담당자는 학연·혈연·지연 등으로 유착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직렬간 교차인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성 한옥 보존 협의 5명 오늘 방북

● 통일부는 1일 북한과 개성 한옥 보존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책임연구원 등 5명은 2일 개성시내 민속여관에서 북측 관계자 5명을 만나 개성 한옥보존사업과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협의한다.

"日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규탄한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모인 자정한대협(회실현국민행동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일본 아베 정부의 각의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관피아 근절 제도적 틀 이달 완료"

정 총리 유임 첫 국무회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공직개혁을 위해 공직자 취업제한, 공직개방 확대 등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틀이 7월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총리 유임이 결정된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막중한 임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 부처는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변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 있으면 저에게 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가개조와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고 덧붙였다.

안전혁신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자체점검, 매뉴얼 교육·훈련 등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난번 실시한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준기자 jmkim@

"군사훈련 중단 수용 어렵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일 북한 국방위가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자며 특별제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내용상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형식에는 약간 특이성이 있으나 내용은 지난 1월부터 주장해오던 연장선에 있다. 비방 중상을 얘기하지만 먼저 재개한 것은 북측이었다"며 비난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군사 훈련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도 전망했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응 기조를 잡아나갈 계획이다. /정민준기자

여성폭력, 민 관·경 손잡다

서울 영등포구가 최근 영등포경찰서·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사)휴먼서비스복지회와 함께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여성폭력추방 캠페인 실시를 포함해 여성폭력예방과 안전망 구축의 총괄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LED 교체 지원

서울 동대문구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18일까지 현장조사 및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24일부터 각 동별로 교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심속 안전 피서 지도

서울 강동구는 도심 속 피서지인 고덕천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1일부터 공원 내 수경시설을 본격 가동했다.

구는 물놀이장에 시설관리원을 고정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을 돕고 주민 스스로 안전한 물놀이를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반곤 노인들 '도끼상소' 퍼포먼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앞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복복 수여를 촉구하며 도끼상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식 살인교사 정황 포착

친구 팽씨에 "묵비권 행사해" 쪽지… 건축사 "토지 용도변경 약속" 진술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뇌물을 받은 주가 정황이 포착되는 등 범행 동기가 단순한 빚 독촉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수감 상태에서 청부살인을 실행해 준 친구 팽(44)씨에게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또 건축사로부터 김 의원이 피해자에게 토지 용도변경을 약속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피해자 송(67)씨와 수년간 함께 일해온 건축사 A씨가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제6·4지방선거 전에는 성사될 거라는 이야기를 송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송씨가 소유한 이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해 증축과 개발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은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최대 800%까지 오르고, 증축할 수 있는 높이도 4층에서 20층까지로 범위가 확대돼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A씨는 서울시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 실제 이 지역이 용도변경 입안지구에 상정됐다가 3개월 뒤 입안 중이라는 글자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시점에 결국 용도변경이 무산됐고, 이후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압박을 받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장에 수감된 김 의원은 전날부터 태도를 바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팽씨가 국내로 압송됐을 때 아무도 선임한 적 없는 변호사가 팽씨를 접견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이 변호사는 김 의원과 수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의원이 팽씨가 한국에 압송됐는지,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하려고 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측근을 통해 변호사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현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미군이 버린 전투식량 유통

주한미군이 훈련 후 폐기처분한 전투식량을 주워다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미군이 훈련 후 영내 또는 야외 훈련장 소각장에 버린 전투식량을 수거해 재색 유통 판매한 혐의로 이모(7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한 미군 비행장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이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훈련 후 영내 소각장에 버려진 미군 전투식량을 수거해 유통업자 유모(76)씨에게 10개 또는 12개 묶음 한 상자당 2000~3000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투식량은 서울 동묘시장에서 주로 캠핑·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개당 5000~8000원에 팔려나갔다. /윤다혜기자

현대百 천호점 옆 빌딩 '흔들'

주민 신고… 강동구 "버스·지하철 영향인 듯"

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현대백화점 천호점 맞은편 빌딩 2개동에서 주민들이 건물 흔들림을 느꼈다고 신고해 관계기관들이 긴급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중 한 동은 지은지 34년 된 6층 빌딩이지만, 다른 한 동은 2005년 완공된 11층 빌딩으로 지금껏 문제를 겪은 적이 없었다고 빌딩측은 전했다.

빌딩 관계자는 "최근 현대백화점 천호점의 1층 마감재가 떨어진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강동구청은 경찰, 소방관과 함께 주변 건물들을 한 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구청측은 "백화점 증축공사와 이번 건물 흔들림 사이에 상관 관계는 없어 보인다"며 "대형 자량이나 지하철 흔들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1분께 1층 안경을 판매하는 매장 부근 천장의 마감재 24㎡ 가량이 떨어져 직원과 손님 등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다혜기자 ydh@

여경의 날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제69주년 여경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병장 도주때 1차 포위망 못 넘어"

교전 유무는 추가 조사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 직후 실시된 임 병장 생포 작전과 관련해 "당시 3중 포위망을 만들었고, 임 병장은 1차 포위망을 넘어가지 못한 채 생포됐다"고 밝혔다.

임 병장이 도주 과정에서 체포조를 3차례 만났지만 제지를 당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다만 김 대변인은 "임 병장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수색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을 만났다고 본인이 주장할 수도 있다"면서 "(임 병장을 다른 장병들이 접촉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또 임 병장이 도주 과정에서 체포조와 교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총격으로 다친 소대장은 '교전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부상도 당했다"며 "하지만 5명의 장병을 살해한 임 병장은 '그런 게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준기자

취업 잘되는 관광분야 전문가 양성

내 적성을 찾아라! 방송통신대 Q&A 5 관광학과

Q 방송통신대 관광학과는 어떻게 개설되었나

A 21세기 서비스 산업 가운데 가장 각광받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개설되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관광분야의 미래지향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Q 관광학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나

A 관광학과에서는 관광학개론, 서비스매너, 여행영어, 여행일어, 관광행동, 호텔 외식, 이벤트·컨벤션 등 관광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해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Q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졸업 후에는 관광산업 분야(여행사, 항공사, 호텔 외식업계, 국제회의업계, 컨벤션관련 기구 등), 관광개발 분야(관광개발업체, 컨설팅업체 등), 관광해설분야(문화관광 자연 숲 해설, 국내외 여행안내 등), 관광관련 공공기관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의 02-3668-4460)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한국방송통신대 관광학과 '[illegible]' 모임 '보기 싫은 소리' 팀원들이 기념에 위시한 쁘띠 프랑스에서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제공

속초해수욕장 개장 1일 강원지역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젊은이들이 모래 장난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제2롯데월드 사용승인 날까

전문가 자문단 저층부 현장 검증 "안전 최우선"

롯데물산이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신청서 통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제2롯데월드는 123층(약 555m) 규모의 초고층 건축물로 저층부의 경우 일일 최대 20만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공사현장에서 ACS폼 추락 사고, 배관 파열 사고, 화재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저층부 개장 시 잠실역 사거리 교통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시민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지난달 25일 시청에서 1차 회의를 한 데 이어 1일 비공개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정은경기자 rrjkim@metroseoul.co.kr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이성보·김영란 현 전 국민권익위원장 발표

2일과 3일 양일간 미국·오스트리아·캐나다·일본·중국(마카오·홍콩 포함)·말레이시아·아일랜드·이란·인도네시아·키르기즈·태국·파키스탄 등 13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우리나라에 1994년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이를 기념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옴부즈만과 국민의 삶, 그 역동적 관계'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14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세계은행의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자로 나선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과 김영란 전 위원장이 직접 연사로 참가해 '집단 갈등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한국 옴부즈만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외에 국내 연사로는 정부부처 중 옴부즈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의 옴부즈만, 지자체로는 강원도 옴부즈만과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참가한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기막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변화 과정을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해 권리주장보다는 국가에 순응하는 특성이 있던 산업화시기(1964~70년대), 인권과 시민의식이 성장하던 민주화 시기(1980~90년대), 권익보호요구가 커진 선진화시기(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이 선진화시기에 한국 옴부즈만은 권익구제와 행정통제, 공공갈등 해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과 정부간 소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보 위원장은 3일 제4세션에서 집단민원의 특성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제기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민원 ▲위법 부당성 판단보다는 이해조정이 중요한 민원 ▲해결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처리에 긴 시간이 드는 민원 등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이 없어도 주요 갈등사안은 기획조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세계옴부즈만협회 부회장인 다이앤 웰본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과 시민 구성원간 신뢰 강화'를 주제로, 피터 틴달 아일랜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주제로, 귄터 크라우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총장은 옴부즈만 기관간 국제적 지원의 협력 활동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윤다혜기자

자위대 막강 전투력 날개 달다

日 헌법해석 변경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 일본의 군사력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신조 내각은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했다. 새 헌법해석은 무력행사 범위를 필요 최소 한도로 규정한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일본은 60년 이상 교전권을 부정하는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뜻)' 원칙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헌법해석 변경으로 군사 행동의 범경이 넓어졌다.

전쟁 반대!' 지난달 30일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열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변경 반대 시위에서 한 소년이 '전쟁 반대'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핵전력을 제외한 50여 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매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올해 일본은 10위를 차지했다. 자위대 정규 병력 수는 약 24만8000명으로 2013년 기준 세계 22위다. 하지만 일본의 해상 병력은 동북아 최강급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 1만 9500t에 달하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8척, 잠수함 16척과 기뢰함정 29척, 초계함 6척, 수송함 12척 등 총 14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자위대 전력은 향후 10년 내 한층 더 강화된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해상과 공중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이뤄진 무기수출 3원칙 전면 개정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은 이런 방위력 증강 추세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월드컵 너무 즐기면 곤란?

metro Colombia

보고타 '금주법'까지

rtido habrá
' 'pico y placa'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의 월드컵 16강전이 펼쳐진 지난 주말. 2골차로 우루과이를 침몰시킨 콜롬비아는 기쁨으로 들끓었다. 승리에 도취된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졌다.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고타 시당국과 정부 관계자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걱정돼서다.

축구에 열정적이기로 소문난 남미에서 월드컵 승리가 갖는 의미는 상상 그 이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현장에서는 대규모 난동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심할 경우 중상자뿐 아니라 목숨을 잃는 사태도 발생한다.

이에 보고타를 이끄는 리카르도 보니야 시장과 일단 펜이포 부시장은 지난 주말 특단의 대책을 시행했다. 가장 강력한 것은 '금주법'이다.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같은 시각까지 24시간 술을 팔지 못하게 했다. 경기에 흥분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통제도 엄격해졌다. 오토바이 뒷 자석에 동승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자동차 요일제도 실시됐다. 뭐가 뭐니 거름을 이용한 음주도 금지됐다. 시 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했다. 언제 어디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아예 하늘에서 대기하며 지켜보자는 것이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일>

코스피	코스닥
1997.00 (-3.20)	544.90 (+7.84)

금리	환율
2.66 (-0.02)	1011.00 (-0.50)

뉴스&뉴스

투명우산으로 안전하게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에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 우산'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수출 작년 대비 2.5% ↑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액이 478억36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입액은 425억5000만 달러로 4.5%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52억8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2835억6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고, 수입액은 2.7% 증가한 2632억9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202억7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민지기자

유효기간 지난 쿠폰 환불

● 카카오는 1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하는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자동환불제를 실시해 사용자 미환급금을 사실상 0%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직접 모바일 교환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모든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자동 환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모바일 교환권 이용시 기존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처리해 오던 유효기간 연장, 환불절차를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박성훈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국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365
2010년 8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0

점유율 90% 윈도와 공조가 관건

Issue&View MS 국내 검색 시장 진출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구글·네이버 중간 모델 선보일 듯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 검색서비스 시장에 연내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혀 사업계가 동향 파악에 나섰다.

MS는 1일 자체 검색서비스 '빙(Bing)'을 하반기 한국에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도 빙이 서비스되고 있지만 이는 포털 다음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선에 그치는 베타버전의 소극적인 방식이다.

북미에서 검색 점유율 10%를 넘긴 빙은 검색 결과만 보여주는 구글과는 서비스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검색 결과와 함께 날씨, 환율, 스포츠 경기 점수, 계산기, 달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문학 등의 콘텐츠도 곁들인다.

쉽게 말해 구글과 네이버의 중간쯤 되는 모델이다. 즉 연말께 북미에서 볼 수 있는 빙이 한국에도 들어온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검색 포털 시장은 네이버가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다음이 10%대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 네이트, 줌닷컴 등이 한자릿수의 존재감을 지닌 상태다.

결국 빙은 네이버를 넘어서야 한다. 문제는 네이버의 UI(사용자환경)와 콘텐츠에 적응한 국내 유저들이 빙이라는 새로운 틀과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실제 북미 버전의 빙을 살펴보면 뉴스와 동영상, 쇼핑 등 읽을거리 위주인 네이버와 달리 여행, 번역, 날씨, 이벤트, 지도 서비스에 특화돼 있다.

UI도 네이버 등 국내 포털과는 딴판이다. 커다란 배경그림에 검색창을 넣은 첫화면, 콘텐츠를 오밀조밀하게 모아 놓은 섹션 화면 등은 사용 초기에는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빙의 행보가 주목받는 것은 국내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윈도 OS와의 공조 가능성 때문이다. 10명 중 9명이 쓰는 윈도에 빙 검색을 추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실제 한국MS는 빙 검색을 기본 장착하는 조건으로 9인치 이하 화면을 사용하는 PC제품에 윈도를 무료로 탑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경우에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10만~30만원대인 윈도를 공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MS는 국내 PC 사용자의 90%를 빙 유저로 만들 수 있다.

빙은 바퀴를 뜻한다. 아울러 '독빙'이라는 속어로도 쓰인다. 한국에 상륙하는 빙이 누구다 즐기는 바퀴가 될까, 그들만의 독빙이 될까.

키덜트족 겨냥 'U프렌즈 페스티벌' 1일 서울 목동 현대백화점에서 직원들이 대형 피규어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 프로어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U프렌즈 페스티벌'을 목동점, 천호점, 대구점 등에서 차례로 벌인다. /연합뉴스

현대차·모비스·금호타이어·YG엔터…

국민연금, 올 상반기 경기민감주 많이 샀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유통, 소재 등 글로벌 경기회복에 민감한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5% 이상인 종목(지난달 29일 기준) 가운데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추가 또는 신규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늘린 종목은 162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46개 종목을 사들였던 것과 비교해 소폭 늘어난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와 관련 부품주의 지분 증가가 눈에 띈다.

현대자동차의 지분율은 현재 8.02%로 지난해 말 7.58%에서 0.44%포인트 높아졌다.

현대모비스와 금호타이어는 지분율이 1.00%포인트씩 올라 각각 8.02%, 7.93%로 확대됐다.

국민연금이 이 기간 매수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은 14개였다.

유통과 미디어 업종도 국민연금의 지분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YG엔터테인먼트 지분(6.50%)을 지난해 말보다 1.50%포인트 늘렸다. CJ E&M(5.19%), CJ헬로비전(6.38%) 등 미디어 관련 종목의 지분율도 1%포인트 넘게 끌어올렸다.

유통 업종에서는 이마트(6.01%), 신세계(6.63%), 현대홈쇼핑(0.56%), 롯데하이마트(9.45%) 등 각 종목에 대해 1%포인트씩 골고루 지분을 늘렸다.

소재 업종의 경우 국민연금은 철강, 화학 등 구분 없이 29개 종목에서 전반적으로 지분을 확대했다.

현대제철(7.01%), 고려아연(8.06%), 금호석유화학(9.28%) 등에서 지분율이 1%포인트 이상 늘었다.

코스닥시장의 바이오주에 대한 신규 매수도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건강관리장비 전문 업체인 아이센스의 지분을 5.07%를 새로 매수했고 동종 업체인 제이브이엠은 이 기간 지분을 5.12%에서 8.28%까지 늘렸다. /김현정기자

채권단-신보 지원 합의 동부제철 자율협약 개시

신용보증기금(신보)이 회사채 신속 인수에 대해 협조키로 함에 따라 동부제철과 채권단 간의 자율협약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1일 동부제철 채권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동부제철 자율협약 추진과 관련한 신보와 채권단간 사전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 따라 신보는 신속인수제를 통한 동부제철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하게 된다. 채권단은 신보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동부제철과의 자율협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자율협약 개결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7일까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24일 동부제철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신보가 신규지원분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워크아웃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자율협약 개시를 위해서는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의절차가 마무리되면 채권단은 2개월간 실사를 통해 동부제철의 경영현황과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신규자금 지원과 출자전환 등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부제철의 채권금융기관은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농협금융공사 등이다. /박태인기자 alive0203@

'방카 25%룰' 놓고 보험-은행 충돌

당국, 규제 완화 차원 금융권 의견 수렴

최근 은행을 비롯한 카드·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방카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이 세월호 참사로 미뤄졌던 금융규제 완화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회에 금융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10여 차례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의견 수렴을 끝냈다.

은행권에서는 방카슈랑스(이하 방카) 규제완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방카 25%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방카 25%룰'이란 한 지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중소보험사 상품의 판매 위축과 금융기관의 부당한 영업행위 차단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방카 25%룰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설계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은행권은 또 방카 모집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점포별로 2명만이 방카 모집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들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다른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같이 업무범위를 제한한 규제도 인력 은행의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은행 측의 주장이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25%룰은 방카 시장 참여자의 자율 경쟁을 제한하고,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은행권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5%룰이 사라지면 은행은 계열 보험사나 수수료를 많이 주는 회사 상품을 팔려 할 것"이라며 "이는 시장 혜곡을 가져오고, 당초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업계 내에서도 은행계 보험사들은 입장이 다소 엇갈린다. 은행계 보험사는 설계사 채널보다 방카 의존이 높은 만큼, 규제 완화시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로 의견 차이가 많은 문제"라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보희기자 bh@metroseoul.co.kr

황금연휴 카드 덜 긁었다

평균 결제액 역대 최저

황금연휴에도 지난 5월 전체 카드의 결제건당 평균결제금액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5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전체 카드 평균결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9.5% 감소한 4만5319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모두 48조3400억원으로 나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것이지만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 황금연휴에 따른 소비회디 기대감을 고려했을 때는 소폭 증가에 그친 셈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영업일수가 22일인데 반해 지난달은 20일로 감소했다"며 "여기에 세월호 사고의 여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다 평균결제금의 수준이 낮은 체크카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평균결제금액 하락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신용카드의 하락세는 카드 승인실적 부진의 요인으로 빠지지 않고 지목된다.

5월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한 38조6900억원에 그쳤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성숙기에 접어든 신용카드 시장은 꽃을 때 이는 소비자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csh01208

코넥스시장 개장 1주년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개장 1주년 기념식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기 탈출 훈련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원에서 승무원들이 항공기 비상착륙을 대비해 탈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불편사항 원스톱 해결

금감원 '1332' 서비스 확대

금융감독원이 통합콜센터인 '금융민원 상담전화 1332'의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단순상담 뿐만 아니라 금융관련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신용카드 보유 여부 확인 △연락처 일괄 변경 △긴급상담 △문자메시지 활용 강화 등이다.

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한 신용카드를 알고 싶을 경우 1332에 문의하면 접수 후 카드사를 통해 통보해준다.

/김민제기자 minj@

경매 아파트 낙찰 포기 급증… 과열 부작용

과열 분위기에 휩쓸려 법원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를 고가로 낙찰 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낙찰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도 함께 떼이게 돼 입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6월 재매각으로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수는 총 166건이다. 전달 134건보다 23.9% 증가한 수치다.

경매 재매각 물건은 낙찰자가 잔금납부 기한(통상 낙찰일로부터 40일) 이내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경매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최종 낙찰을 포기해 다시 입찰에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올해 재매각 물건은 1월 94건에서 2월 91건, 3월 93건 등 100건 미만이었지만 4월 들어 140건, 5월 134건, 6월 166건으로 3개월 연속 100건을 상회했다.

낙찰 포기 물건이 재경매로 나와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낙찰일로부터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4~6월 재매각 건수 증가는 2~4월 낙찰자 가운데 스스로 낙찰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에 재매각으로 나온 166건은 지난 4월 아파트 전체 낙찰건수(1734건)의 9.6%를 차지한다. 4월 아파트를 낙찰 받은 10명중 1명은 최종 낙찰을 포기한 셈이다.

이처럼 낙찰 포기자가 늘어나는 것은 고가 낙찰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 4월 전국 86.4%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2월과 5월 각각 90%를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낙찰가가 감정가의 90% 이상일 경우 일반 급매물을 사는 것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2·26대책 이후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경매로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대구·제주 등 지역에 따라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곳이 많아 낙찰 포기자들도 많다"며 "수도권은 낙찰가율이 주춤한 상태지만 지방은 여전히 높아 7월 이후에도 재매각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sun0428@

LG전자 - LG유플러스

IoT 시장 함께 잡는다

<사물인터넷>

TFT 구성 이달중 본격화…7대 협업 서비스 출시 계획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사물인터넷(IoT) 시장 선점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달부터 사물인터넷 시장 선점을 위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는데 합의하고 이달 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아이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물인터넷은 미래 통신시장을 주도할 기술로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미래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을 2020년까지 30조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도 세웠다.

양사는 LG전자와 LG유플러스 플랫폼 간 연동을 통해 전략적 융복합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협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동기술은 선별해 연구하기로 했다.

LG전자와 LG유플러스는 최근 양사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 △홈 헬스코치 △스마트홈서비스에 근거리무선통신(NFC)·광고관리솔루션(Ads)을 결합한 서비스 △스마트 카앤홈 서비스 △스마트 카앤홈에 웨어러블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스마트홈·카앤홈에 Ads를 결합한 서비스 △통합 스마트 그리드 등 7대 협업 서비스 출시를 위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홈 서비스는 LG유플러스의 U+tvG와 홈보이를 기반으로 댁내 기전제어, 도어락, CCTV, N스크린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홈 헬스코치는 고객의 신체정보 체중 혈당 혈압 정도 등 빅데이터를 기반한 고객분석을 통해 섭취필요 음식·영양소 관련 콘텐츠 정보를 제공한다. 스마트홈과 NFC·Ads를 결합한 서비스는 고객의 스마트홈 사용기기의 정보와 이용행태를 분석해 관련 광고를 송출하고 고객이 사용중인 디바이스로 어디서나 결재를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다.

스마트 카앤홈은 차량에서도 카인포테인먼트를 활용해 댁내 장치를 제어하는 서비스다. 기존 홈서비스에서 카메티드 키로 확대하는 것이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도어락 비상등, 주차위치, 차량상태정보 등을 알리는 스마트 카앤홈 서비스도 선보인다. 스마트홈·카앤홈을 이용하는 행태를 분석해 관련 광고를 송출하고 고객이 사용중인 디바이스로 어디서든 결재가 가능한 서비스도 내놓는다.

이밖에 스마트홈 서비스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합한 사물통신·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에코시스템도 구축한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는 디바이스, LG유플러스는 통신망과 관련한 사물인터넷 협업서비스를 만든 방침"이라며 "양사간 협력을 통해 주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시장 선점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삼성 SSD 글로벌 서밋 전계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4 삼성 SSD 글로벌 서밋'에서 3D V낸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갤럭시 탭4' 출시 삼성전자가 휴대성 LTE 태블릿 '갤럭시 탭4(GALAXY Tab4)'를 KT와 LG U+ 전용으로 출시한다고 1일 전했다. /삼성전자 제공

상떼빌 아파트 '성원건설', 결국 파산 신청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유명한 중견건설사 성원건설이 계속되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지난 달 1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폐지(파산)을 신청했다. 오는 4일까지 채권단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된다.

성원건설은 1977년 태우종합개발로 출발해 1979년 현재의 상호로 바꾼 뒤 2000년대 '상떼빌'아파트로 전성기를 맞았다. 또 2006년 두바이 지사를, 2007년 바레인 지사를 세우는 등 사세를 해외로 확장하며 시공순위 58위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해외건설 미수금 문제 등이 겹치면서 2010년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2012년 2월부터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첫 매각에서는 인수를 원하는 곳이 없어 유찰됐다. 이어 두 번째 매각에서는 SM그룹을 자회사인 진덕산업이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지난해 3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이 인수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박선옥기자 pso0920@

넥슨 네오플 넥슨지티 등 경력 공채

정착비 포함 제주 이전비 파격 지원 계획

넥슨, 네오플, 넥슨지티, 띵소프트 등 넥슨 컴퍼니 4개사에서 1일부터 28일까지 2014년도 하반기 경력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게임 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사업을 비롯해 IT엔지니어 등 전 분야다. 해당 경력 1년 이상자라면 누구나 모는 28일 오후 5시까지 넥슨 컴퍼니 채용 홈페이지(http://career.nexon.com)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넥슨, 넥슨지티, 띵소프트의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인사 전형은 서류 전형, 과제 심사, 면접 순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된다.

제주로 본사 이전을 준비 중인 네오플은 제주에서 근무 가능한 경력·신입사원을 함께 공개 채용한다. 모집 분야와 모집 기간, 입사 전형은 동일하며 신입의 경우 2014년 8월 또는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2014년 2월 기졸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한편 네오플은 2015년 초까지 제주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제주 외 지역권에서 이동하거나 채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게임 개발에 최적화된 근무환경과 더불어 주거, 이사, 조기 정착비 지원까지 한다. 가족 항공권, 어린이집, 배우자 문화생활비 등 직원과 직원 가족의 안정적인 제주 정착을 위한 유례없는 최상의 복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상훈기자 zanx

게임아이템 가격 싸질까

공정위, 중개수수료 인상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시장의 1, 2위 업체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판매수수료 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 2위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5.2%에 달한다"며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돼 중개거래 수수료 인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는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을 넘는 판매수수료 인상 금지, 3년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적립포인트 변경 금지,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사고 보상·피해구제 방안 수립 등이다.

앞서 비엔엠홀딩스는 2012년 6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주식을 100%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시장 점유율은 2011년 기준 각각 52.0%(거래금액 55○2억원), 43.2%(4612억원)에 달했다.

/유주영기자 boa@

현대차 중국서 인피니티·BMW 제쳤다

고객 만족도 평가 역대 최고 점수 일반 브랜드 부문 공동 1위 명성

현대차가 세계 최대시장 중국에서 고객만족 1등 브랜드에 올랐다.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Power)의 '2014 중국 판매 만족도 평가(SSI, Sales Satisfaction Index)'에서 베이징현대(현대차 중국법인)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총 54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응대 △딜러 시설 △딜러 역량 등 종합적인 판매 만족도 조사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772점을 기록, 같은 점수의 동펑시트로엥과 함께 일반 브랜드 부문 공동 1위를 달성했다.

특히 고급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도 인피니티(766점), BMW(767점), 벤츠(648점) 등을 모두 제치고 아우디(793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둥펑위에다기아(기아차 중국법인) 또한 전년 대비 43점 상승한 746점으로 일반 브랜드 평균(671점)을 훨씬 상회하며 상하이폭스바겐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라 현대·기아차 모두 상위권에 올랐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급속한 판매 성장세 속에 나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1월 월간 최대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2월에는 누적 판매 80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1% 늘어난 72만6011대를 판매해 GM을 제치고 중국 승용차 시장 2위에 오르는 등 양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현대·기아차는 이러한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판매·서비스 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판매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판매 우수 인력을 본사로 초청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과 판매·서비스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딜러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 중심의 기업 마인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대·기아차는 판매의 기본인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딜러 경쟁력 등 내실 강화에 나서 중국시장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디파워의 중국 판매만족도 평가(SSI)는 중국시장 내 각 업체의 판매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인식돼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총 51개 도시에서 2013년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신차를 구매한 고객 1만53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지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현대중공업, 7억달러 해양설비 수주

현대중공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총 7억달러 규모의 해양설비를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쉘(셸)E&P 말레이시아'로부터 가스중앙처리플랫폼 1기와 생산플랫폼 1기에 대한 수주합의서(LOA, Letter Of Award)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2013년 완공한 미얀마 쉐(SHWE) 가스 생산플랫폼(해양설비) 설치 완료 모습 /현대중공업 제공

이번에 수주한 중앙처리플랫폼(Central Processing Platform)은 총 3만3000톤 규모로 가스생산플랫폼에서 뽑아올린 탄화수소(Hydrocarbon)를 하루 4억3000만입방피트의 가스와 1만5000배럴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로 분리한다.

이 설비들은 오는 2016년 하반기까지 말레이시아 북동부 코타키나발루시에서 북동쪽으로 150km 떨어진 비가딩 해상 가스전에 설치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공사에 착수해 설계와 구매, 제작, 설치·시운전 등 모든 공정을 책임지는 일괄도급방식(EPIC)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LNG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에는 지난해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할 만큼 수요가 급증했다"며 "앞으로 동남아 지역의 해상 가스전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유사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kimdt@

KT,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후원사 선정 KT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신부문 공식후원사로 선정됐다. (오른쪽부터 순서대로)황창규 KT 회장,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김진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1일 KT 광화문사옥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신부문 공식후원사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kt금호렌터카, '레인OK 스피트 프로모션'

케이티렌탈(대표 표현명)의 렌터카 브랜드 kt금호렌터카는 자동차 용품 전문기업 불스원(대표 이창준)과 함께 장마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와줄 '레인OK 스피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7~8월 중 비가 오는 날 kt금호렌터카에서 차량을 빌리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차량 전면 유리, 사이드 미러에 불스원 레인OK 스피드 제품을 이용해 무료 유리발수코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스원의 레인OK는 비올 때 뿌리기만 하면 빗물이 맺히지

않고 흩어지거나 운전 시 선명한 시야를 확보해준다.

kt렌탈 윤종진 전무는 "장마철을 앞두고 비 오는 날 운전에 어려움을 겪을 고객의 안전운전을 위해 이 같은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지희기자 ferrari58

보급형 디지털TV 가격 인하

미래부, 저소득층 지원 3개 모델 1만원 낮춰

미래창조과학부는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을 위해 디지털TV 8개 모델 중 3개 모델의 가격을 1만원씩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두번째 가격조정으로 지난 4월 4개 모델 가격을 1만~4만원 내렸다.

이번에 가격을 인하하는 모델은 삼성전자 32인치 'UN32F4000AF', 40인치 'UN40F5009AF', LG전자 42인치 '42LN540Q-NA' 등 3개 제품이다.

이번에 재조정된 가격은 1일부터 적용된다.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는 셋톱박스 없이 TV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시청이 가능한 클리어쾀TV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 보급형TV 'UN40F5003AF'

미래부는 저소득층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TV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124번)로 신청하면 된다.

미래부는 향후 주기적인 시장 가격을 점검해 올 10월에도 디지털TV 가격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9~10월에는 2015년 보급 대상 디지털TV를 신규 공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지원사업은 2017년 12월 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Ey0403@

구본무 회장 "강한 대학 가진 나라, 세계 리드"

연암해외연구교수 증서수여식…26년간 200억 지원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강한 대학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리드한다."

구본무 LG 회장은 30일 LG연암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연암해외연구교수 증서수여식'에서 "LG가 해외연구 과제를 선정해 후원해온 것은 대학 교육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LG는 지난 1989년부터 인재 양성과 학문수준의 세계화를 위해 이공계, 인문사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교수를 선발해 1년간 해외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대학교수 30명에게는 1인당 연간 3만6000 달러 상당의 해외 연구비와 본인과 배우자의 왕복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올해까지 26년간 717명에게 200억원이 넘는 해외 연구비를 지원했다.

구본무 회장은 "대학이 학문과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 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며 "대학 경쟁력의 핵심은 교수진의 연구와 교육 능력이다. LG가 연구의욕과 역량이 탁월한 교수를 후원하는 일은 보람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해외연구 성과는 후학들과 우리 사회,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연암해외연구교수 지원사업에는 국내외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교수들이 선발돼 지원 사업의 권위를 높였다.

포항공대 이태우 교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상용화를 앞당길 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 나노리본을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제작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서울대 이지희 교수는 고체 윤활제의 일종인 '이황화몰리브덴'을 활용해 얇으면서도 휘어지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영남대 서태원 교수는 '수동 유연 관절을 이용한 트릭 형상 보드 기반 등반로봇 개발' 논문으로 미국기계학회(ASME) 등에서 수여하는 '2014년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 '백두용과 한남서림 연구'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되는 등 문학 관련 활발한 저서 활동을 펼치온 강원대 이민희 교수 등도 선발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현민구 심사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과 선발교수를 비롯해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방남 LG인화원 사장, 조준호 LG 사장, 김대훈 LG CNS 사장, 유진녕 LG화학 기술연구원 사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사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송학선기자 kso10@metroseoul.co.kr

제26회 연암해외연구교수 증서수여식 단체 사진(첫번째 줄 우측 세번째 구본무 LG회장) /LG 제공

'구름 위의 행복한 마을'

SK, 전통 고택 리조트 개장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기업인 행복전통마을이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이외민속촌 일원에 설립한 전통 고택 리조트 '구름에'를 1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구름 위의 행복한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구름에'는 유실 위기에 처한 문화재를 되살린 국내 최초의 고택 리조트다. 전통 한옥의 고풍스런 건축미에 현대적인 편리함을 접목해 격조있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인이 고유의 역사문화 유산을 쉬고 편안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공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고택 리조트 '구름에' 운영을 맡은 행복전통마을은 SK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와 함께 지난 2012년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행복전통마을은 '구름에'를 구성하는 고택숙박단지(총 8개 동, 18실)와 문화단지(총 7개 동)를 기반으로 고택숙박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연계해 숙박과 동시에 전통문화 체험까지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택숙박단지는 첨단 출입시스템, 현대식 욕실 등을 갖춘 △객실 편의시설 △서비스 부대시설 △회의·휴게시설 △레스토랑·카페 △체력단련 휴양 공간 등을 도입해 기존 민박형태의 고택 체험에 대한 불편함을 보완하고 전통 한옥에 현대적인 편리함을 조화롭게 접목시켰다.

또 각선을 이루는 7채의 고택(계남고택, 칠곡고택, 권화당재사, 감동재사, 서운정, 청음정, 박산정)은 종가, 대가, 재사, 정자 등으로 분류돼 국내 고택 중 가장 다양한 형태의 숙박 공간을 자랑한다.

고택 리조트 '구름에'는 경북 안동시 민속촌길 190에 있다.

/이혜균기자

제조업 이어 유통도 체감경기 ↓

3분기 BSI 하락 세월호 참사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여파

제조업 경기전망지수에 이어 3분기 유통업 체감경기도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무더위와 이른 추석 특수로 기준치인 100은 간신히 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서울과 6대 광역시 943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3분기 전망치가 전분기대비 11포인트 떨어진 '102'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소비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해 3분기부터 지속됐지만 세월호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하락했다"며 "그러나 휴가시즌을 거치며 소비심리가 다소나마 개선되고,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추석 특수로 한해 기준치인 100은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유통업체가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홈쇼핑(120)과 인터넷쇼핑(112)이 낙관적으로 전망된 가운데 편의점(100)과 백화점(100)은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대형마트(97)와 슈퍼마켓(96)은 다소 부진한 성과가 예측됐다.

홈쇼핑(120)은 장마, 무더위 등 계절적 영향으로 안방 쇼핑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휴가시즌 여행상품 판매 증가로 여름 특수를 크게 누릴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몰(112)은 앱사용자 증가에 따른 모바일 쇼핑의 성장과 바캉스 시즌을 맞은 의류·패션 잡화 매출 증가가 실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편의점(100)은 하절기 야간 매출증가와 음료, 빙과류, 주류 등 인기 상품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백화점(100)은 3분기 복합쇼핑몰 오픈과 이른 추석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요인으로 작용했다.

김경종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월드컵 특수가 실종됐다고 할 정도로 현재 소비시장은 활력을 찾지 못해 3분기에도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이라며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부와 기업간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학균기자

효성, 소통이 경쟁력…'워크 스마트 캠페인'

효성이 7월부터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워크 스마트(Work Smart)' 캠페인을 실시한다. 워크 스마트는 업무 환경과 일하는 방식에서 부가가치 없는 모든 활동을 제거해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는 활동이다.

스마트 캠페인은 3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임직원 각자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조직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문서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활동을 6개월 단위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원 페이지 베스트(1 Page Best)' 서면 결재 제로(Zero)와 '3Q(Questions)' 제도 등을 실시한다. '원 페이지 베스트'는 모든 보고서를 1장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다. 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입하는 대신 핵심만을 정리해 간단 명료하게 분석, 정리해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페이퍼리스(paperless) 문화 정착 차원에서 서면결재 제로(Zero)도 추진한다. 효성은 올해 말까지 전자결재 100%, 서면결재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결재라인도 3단계로 간소화해 의사결정 시간을 줄이고, 업무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다.

효성의 고유 문화인 3Q(Questions) 제도도 부활한다. 3Q란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을 때 상사에게 사전에 이 업무를 왜(Why), 언제까지(When), 어느 정도까지(How) 해야 하는지 등 3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업무의 목표와 납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 추진하는 제도다.

효성은 회사내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 1일 사내 방송인 'HBS(Hyosung Broadcasting System)'를 개국했다. 효성은 HBS를 통해 각 사업부문(PG)과 사업장 별로 주요 뉴스를 제작하고, 전세계 70여곳의 해외 사업장에서 방송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학균기자

경험·돈벌이·재미 '일석삼조' 알바 찾아라!

연합뉴스

얼음공장·워터파크·어학원 등 더위 피하고 취업준비도 가능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급한 마음에 편의점·호프집 등 흔한 일바만 찾지 말고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재미까지 맛볼 수 있는 알바를 구해보면 어떨까. 알바전문 포털 알바천국과 알바몬의 도움을 받아 '일석삼조' 알바를 알아본다.

◆피서가 필요없는 꿀알바 –더위를 피하고 돈까지 벌 수 있는 알바가 인기다. 가나물류에서는 아이스크림 포장과 입고, 제품확인 일지 작성을 담당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중이다. 통근버스, 식사도 제공한다. 대한냉동산업에서도 얼음공장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다. 월급은 140만원 수준이다.

성수기를 맞은 워터파크·해수욕장에서도 시설 관리, 안전요원을 뽑고 있다.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시급이 올라간다. 특히 휴무일이나 근무가 끝난 시간에 시설을 무료 또는 직원 할인가로 제공하는 곳도 많다.

파티플래너 기업 레이디파티에서는 워터파크 단체 손님을 인솔하는 알바를 구하고 있다. 일당은 6만원이다.

◆취업준비에 돈까지, 학원알바 –보다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고 싶다면 학원 알바가 제격이다. 안내 데스크, 학원 강의 보조, 자율학습 지도, 채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을 수 있다. 특히 냉방이 잘되는 사무실 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틈틈이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KNS 어학원에서는 상담직 알바를 모집중이다. 월급은 130만~150만원이다.

어린이 캠프에서 멘토 알바로 활동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주국제영어마을에서 초중생 영어캠프 강사를 뽑고 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원어민 강사 영어교육보조를 맡게 된다. 월급은 120만원으로 제주도 무료투어도 제공한다.

◆경험도 쌓는다, 이색알바 –평소 하기 힘든 경험을 하면 돈도 벌 수 있는 이색알바도 인기다.

바인피플에서는 대학로 연극홍보 알바를 뽑고 있다. 공연 무료 관람은 물론 연극 스태프나 배우로 활동할 기회도 제공한다.

로스터헤드 현당컴퍼니에서는 방송국 방청객 최당화 리서치 알바를 모집중이다. 회당 6000~3만원으로 금여도 높다. SonJob2에서는 맥주브랜드 거리홍보를 담당할 아르바이트생을 찾고 있다.

◆낮보다 치열한 심야알바 –올빼미형 인간이라면 열대야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심야알바에 도전할만 하다. 편의점·PC방 뿐만 아니라 마트, 극장 등에서도 빈자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급도 높다. 대한통운 등 물류회사에서도 야간 대백 업무를 담당할 알바생을 모집중이다. 알바천국, 알바몬 등에서 검색하면 다양한 심야알바를 찾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채용시장 경력직 선호 뚜렷

사람인 조사, 구인·구직 양극화 심화

올 상반기 채용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뚜렷한 경력자 선호 현상으로 나타났다.

1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채용시장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20.3%(복수응답)가 '경력직 채용 증가'를 꼽았다.

불황이 지속되면 신입보다 투자대비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경력 인재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기피 등의 기업간 채용 양극화(17.8%), 구직자 취업 양극화(17%)가 2, 3위에 올랐다. 구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거나 채용되더라도 바로 이탈하고 기업은 고스펙을 갖춘 구직자를 선호하는 취업 미스매칭이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 채용 규모 감소(14.8%), 스펙 대신 인성 평가 비중 강화(9.5%), '인턴 통한 정규직 채용 확산'(7.3%), 상시 등 비공개 채용 비중 증가(6%), 고졸채용 규모 확대(5.8%), '채용 수도권 치중'(5.3%) 등도 올 상반기 채용 시장의 특징으로 꼽혔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면서 신입 구직자는 취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기업 등만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따져 직무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업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이국명기자

한성대 해외봉사단 발대식 1일 서울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해외봉사단 발대식에서 학생들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한성대 제공

영어 공부하고 기부도 하고 YBM어학원이 지난달 30일 YBM어학원 e4u센터에서 'YBM 데이' 수익금 전액과 학용품 310여개를 은평천사원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지난 5월 5일 YBM어학원에서 수강생 대상으로 진행했던 'YBM DAY 케이크 이벤트'의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YBM어학원 제공

취업 고충 털어놓고 응원금 받자

잡코리아, 희로애락 에피소드 공모전

취업준비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 응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25일까지 '취준생 희로애락 에피소드 공모전'을 실시한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등록하면 총 103명에게 취업응원금 총 200만원과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잡코리아 개인회원 로그인 후 1000자 이내로 면접 징크스, 자소서 작성의 고충 등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입력하면 된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1인당 응모횟수 제한도 없다.

한편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취업준비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서류·면접·직무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모션을 제안하는 '취준생 공감 캠페인'을 연간 진행하고 있다. 취준생 관련 다양한 자료가 궁금하다면 취준생 공감 이벤트 페이지(www.jobkore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중장년 재취업 모바일로

노사발전재단 '4060JOB'

재취업을 희망하는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등장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4060 JOB'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채용정보 검색, 기업정보 및 채당기업 지도보기, 모바일 이력서 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하는 구직정보만 받아볼 수 있는 푸시(Push) 기능도 들어 있다.

한편 오프라인에서 취업정보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구직자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전화 문의하거나 전국 [illegible]곳에 위치한 센터를 찾으면 된다. /이국명기자

'여름 사냥' 나선 음료 트렌드는 '기능·착즙·개성'

몸매관리, 영양, 고정된 디자인 탈피한 제품이 인기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 음료시장이 여름 특수 잡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갈증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웰빙과 스타일까지 강화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업계는 '건강'을 키워드로 하고 ▲여름철 건강과 몸매 관리에 도움 주는 기능 ▲맛과 영양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착즙 ▲스타일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개성' 등을 앞세운 제품들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먼저 여름철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건강 음료에 쏠리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와 차병원 의료진이 공동 개발해 만든 건강브랜드 '닥터&닥터'의 경우 제품별로 전문 의료진이 개발에 참여해 기능 성분을 담았다. 330㎖ 페트 음료 타입으로 '나만의 맞춤 건강 가이드'라는 콘셉트와 함께 다이어트·뼈·면역·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로 구성됐다.

모든 제품은 (1ℓ)이며 스마트캡을 적용해 제품 뚜껑을 돌리는 순간 캡 안에 보관된 원료분말이 흘러나와 직사광선 열 등에 노출되지 않아 신선한 기능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또다른 트렌드는 착즙이다.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주스는 보통 3~4배 농축액을 물에 희석시켜 당도를 맞춘 뒤 '100% 주스'라는 표어를 붙인 '농축주스'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착즙주스(NFC)는 물 한 방울도 넣지 않고 오직 100% 과일을 짜서 추출한 원액으로 만든 주스다. 국내 대표적인 착즙주스로는 플로리다 내추럴이 있다. 향료, 색소와 같은 인공첨가물뿐만 아니라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생과일을 그날 바로 짜 제조했으며 자몽 주스는 750㎖ 한 병에 생자몽 4개를, 오렌지 주스는 750㎖ 한 병에 생오렌지 8개를 그대로 담았다.

남다른 개성을 자랑하는 제품들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맘고식스의 투명 텀블러 식스보틀은 색상이나 특별한 디자인을 입히지 않고 텍스트만 표기돼 있어 내용물의 색깔, 모양 별로 연출이 가능해 때에 따라 다양한 콘셉트로 활용이 가능하다. 용기 재질은 친환경 소재인 트라이탄(TRITAN)으로 제작됐으며 남은 음료와 과일 등을 적절 옆에 담아 휴대할 수 있다.

/정을기자 [email]@metroseoul.co.kr

아빠! 캠핑장 어디로 갈꺼야!

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Go Camping' 개설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캠핑장 통합안내 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 Go Camping(www.gocamping.or.kr)'을 개설했다.

사이트는 국민들의 늘어가는 캠핑에 대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전국 1700개가 넘는 캠핑장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캠핑장 주변의 관광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또 이용자들이 목적에 맞는 캠핑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역·위치·테마별로 캠핑장을 그룹화했으며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캠핑 에티켓, 안전 캠핑, 캠핑장비 소개, 캠핑요리 등 다양한 캠핑 콘텐츠를 담고 있다.

아울러 관광공사는 7월 하순까지는 사이트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오픈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Go Camping' 홈페이지 캡처

관광공사는 여름 휴가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관광 정보 서비스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15일까지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여름 휴가'를 주제로 모바일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또 관광공사는 여름 성수기 시즌 관광객들의 혼잡여행을 위한 베나키아 여름 패키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유재희기자 [email]

모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두렵다?

완벽 차단 팁! 알아두자

모기 출현 시기가 빨라지고 개체수도 왕성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일본뇌염 매개 모기(작은빨간집모기)의 첫 출몰 시기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빨라졌다. 올해는 지난 3월 18일 부산에 이어 5월 26일 제주도에서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긁거나 침 바르면 위험

모기는 후각을 통해 먹잇감을 찾는다. 인간이 내는 ▲체열과 습도 ▲이산화탄소 ▲땀에 섞인 젖산 ▲유기산 등의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것이다. 또 모기는 20m 밖의 땀 냄새와 10m 떨어진 곳의 동물이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알아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게다가 술을 마신 뒤 입이나 피부에서 나오는 요산 등의 냄새도 모기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모기를 차단하기 위해선 우선 냄새부터 차단해야 한다. 야외활동을 나갈 때 향이 강한 스킨이나 비누·향수 등은 삼가야 하고 땀을 많이 흘릴 경우에는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모기는 어른보다 열이 많고 땀이 많은 아기, 발냄새, 임신부, 어두운 색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급적 청결에 주의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어야 한다.

최근에는 모기를 차단하기 위한 모기퇴치 용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모기장, 냄새가 강한 리퀴드형 방충제나 모기향, 몸에 직접 뿌리는 분무 형태의 제품과 붙이는 형태의 모기기피제도 있다. 그중 인기가 높아지는 모기기피제는 태극제약의 '모스키토가드액'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효과가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모기에 물렸다면 환부를 긁거나 침을 바르는 등의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2차 감염으로 인해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기 물린 곳을 긁고 침을 바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농가진과 같은 염증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자칫하면 염증이 온몸으로 번져 패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단 모기에 물렸다면 상처 주위를 깨끗하게 씻은 뒤 모기약을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야외활동 시에는 모기나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긴 팔과 긴 바지, 모자 착용을 통해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한다.

/유재희기자

프리미엄 커피를 저렴하게 즐기자

국내 커피시장 규모가 커졌다. 1만2000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커피가 등장하는가 하면 특별한 커피를 찾는 마니아층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인 평균 점심 식사비와 같은 커피 값은 부담스럽다. 좀 더 저렴하고 간편하게 프리미엄 커피를 운치있게 즐겨보자.

가장 손쉬운 방법이 캡슐커피 머신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캡슐을 골라 간편하게 진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개 당 750원~1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독일 프리미엄 캡슐커피 '치보 카피시모'가 있다. 저렴한 가격에 전문점 못지않은 커피를 즐길 수 있어 애호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치보 카피시모에서 판매 중인 총 13가지 캡슐커피는 개인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골라 마실 수 있다.

집이나 직장에서 다양한 커피기구로 직접 원두를 내려 마시는 애호가도 늘고 있다. 취향에 맞게 추출이 가능해 전문 바리스타 못지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옥소 굿그립 '프렌치 프레스'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실리콘 거름망으로 손쉽게 커피를 우려내고, 찌꺼기를 한번에 걸러낼 수 있다. 한번에 4컵 분량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고 눈금이 표시된 유리커그가 들어있어 커피 양 측정이 쉬고 모든 부위가 분리돼 세척이 편리하다.

/정을기자

변덕 여름 날씨엔 '에코 슈즈' 제격

코르크 소재 항균·탈취 기능 있어 바캉스 갈때 좋아
기존 플랫 형태에서 벗어나 웨지·샌들 힐 스타일 강세

올여름 장마가 늦어지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될 거라는 예보에 따라 마·나무·코르크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한 '에코 슈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맥시 스커트·핫팬츠 등 리조트 룩에 잘 어울리는 웨지 힐 형태의 코르크 샌들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코르크는 항균·탈취 기능이 있어 바캉스 시즌에 적합한 소재다. 특히 발취 구조로 발수성이 탁월해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도 끈적이지 않고 쾌적한 발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또한 무게는 가벼운 반면 경도는 높아 코르크 힐의 경우 오래 신어도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1일 SPA 슈즈슈퍼 브랜드 슈르쉬에 따르면 코르크 밑창의 플랫폼 슈즈는 지난달 온·오프라인 판매 1~3위 안에 들며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슈르쉬 MD 담당자는 "코르크 슈즈는 바캉스 룩이나 캐주얼에 잘 어울리는 잇아이템"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롱스커트와 잘 딱궁합인 10cm와 코르크 힐, 짧은 쇼츠에 매치하기 좋은 코르크 플랫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기에 나인웨스트는 뉴트럴 컬러의 코르크 웨지힐을 올여름 주력 신발로 내놨다. 아쉬는 에스빠드류와 코르크가 어우러진 웨지힐을 출시했다.

명품 업계에서도 코르크 힐의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가벼운 코르크 소재를 플랫폼이나 10cm 이상의 굽에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DKNY와 구찌는 각각 가죽과 스웨이드를 코르크와 함께 사용한 콤비 힐을 선보였다. 스튜어트 와이즈먼은 오픈토 슬링백에 웨지 형태의 코르크 굽을 매치한 힐을 바캉스 시즌에 맞춰 내놨다.

통기성과 흡습성이 높은 마 소재 슈즈도 인기다. 스페인 민속 신발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에스빠드류 슈즈는 마 소재를 활용한 대표 아이템. 강렬한 네온톤의 레오파드 패턴이 돋보이는 슈르쉬 LED는 일반 스니커즈에 에스빠드류 굽을 접목시켜 캐주얼 룩에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다.

/이지현기자 jjh@metroseoul.co.kr

샌들 체형에 따라 고르세요

'가리거나, 드러내고' 발·다리 단점 보완

여성들이 토오픈 샌들, 슬리퍼 등으로 감춰져 있던 발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신발도 막상 신어보면 어울리지 않거나 체형의 단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샌들에도 체형에 따라 어울리는 디자인과 피해야 하는 디자인이 있으니 잘 선택해야 한다.

다리가 굵거나 짧은 체형은 다리를 최대한 슬림하고 길어 보이게 하는 슈즈를 선택해야 한다. 발등을 많이 드러내면 발목까지 이어져 전체적으로 다리 길이를 길게 하는 착시 효과를 준다.

이런 체형의 경우 토오픈 슬링백처럼 발등이 깊이 파인 디자인을 선택하거나 X자형, T자형 등 스트랩이 있는 것을 신는 게 좋다. 특히 앞에서 볼 때 다리길이가 한층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며 발목에 스트랩이 없는 타입이 좋다.

발목이 굵은 체형은 발목을 묶거나 감싸는 디자인은 피하고 발등을 드러내는 샌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발등을 많이 가리는 두꺼운 밴드 스트랩 보다는 얇은 스트랩이 분할 효과가 적어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한다. 발목이 가려지는 팬츠에 발등과 발가락이 드러나는 디자인의 샌들을 신는다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발 볼이 넓은 체형은 발등을 감싸주는 샌들이 발 볼을 좁아 보이게 한다. 토오픈의 경우는 발 볼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샌들의 경우 스트랩이 볼 쪽에서 발등을 잡아주는 디자인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특히 X자 스트랩 샌들은 시선을 사선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되도록 얇은 스트랩을 고르고 볼 부분에서 발등 쪽으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미소페, 슈르쉬, 금강제화 제공

종아리에 근육이 많은 체형의 경우 높은 힐이나 얇은 굽기의 힐, 화려한 스타일의 슈즈는 피하는 것이 좋다. 대신에 웨지힐이나 구두굽이 굵으면서 일자형으로 떨어지는 킹 키힐의 신을이 적합하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수작업 맞춤예복 전문 업체 '라비첸토'

고객 개성과 취향 살려 인기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남성들의 결혼 예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무엣이 중시되는 수트의 특성 때문에 기성복보다는 개인의 체형과 스타일을 고려해 제작되는 맞춤 예복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맞춤 예복 업체 중 최근 예비 부부의 눈길을 끌고 있는 업체는 청담동에 위치한 라비첸토(www.rabicento.com)다.

라비첸토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맞춤 예복 업체로 성시경, 백현, 이승수 등의 유명 연예인들이 자주 착용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최고급 원단 및 부자재만을 고집해 패턴과 재단에서부터 마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수십 년 이상의 노하우를 자랑하는 장인의 100% 순수 수작업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 업체는 턱시도 150벌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턱시도 렌탈도 가능하다.

라비첸토 관계자는 "맞춤 예복의 가장 큰 매력은 세상에 오직 한 벌,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고객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은 물론, 신체적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1:1 맞춤형 스타일 컨설팅을 바탕으로 원단 선택부터 세부 디자인까지 나만을 위한 특별한 예복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비첸토는 이탈리아 원단과 스타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자 웨딩정보커뮤니티 '미스숑의 웨딩다이어리(http://cafe.naver.com/iammssy)'를 통해 특가 프로모션을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혜은기자 hanel404@

'자연' 담은 수분 아이템 봇물

브로콜리·당근, 장미수·알로에 수딩 젤도 눈길

잦은 샤워와 에어컨 바람 등으로 건조해지기 쉬운 여름 피부를 위해 뷰티 브랜드들이 '수분 충전' 아이템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브로콜리·알로에 등 자연 성분을 담은 제품이 주를 이룬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신선한 10가지 유기농 야채수를 함유한 '슈퍼 이채미'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은 브로콜리와 파프리카, 토마토·양배추·당근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10가지 유기농 야채수가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풍부한 수분과 탄력감을 준다. 트러블 완화를 돕는 브로콜리와 각질을 케어하는 양배추 등 신선한 청정 원료 성분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푸딩 제형으로 부드럽게 세안 후 얼굴에 골고루 펴 바르고 10~15분 뒤 미온수로 씻어내면 된다.

마몽드의 '로즈워터 멀티 수딩젤'은 다마스크 장미수 10만ppm을 함유해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준다. 탄력 있는 젤 타입이라 바르는 순간 물 터지듯 사용감이 가볍고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듯 시원함을 선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잇츠스킨은 워터 젤 타입의 수딩 제품 '프레쉬 알로에' 때라 젤'을 내놨다. 알로에의 끈적임을 개선해 산뜻하며 얼굴뿐 아니라 몸·모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아이템이다.

/이지현기자

새로 나온 책

역사

경성 고민 상담소

전봉관/민음사

책은 '고민'과 '사랑'을 주제로 1930년대 신문 독자상담 코너에 실린 그 시절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바람이 적극남편, 바람둥이 등의 사연이 솔직하게 녹아있으며 당대 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분석해 근대인들의 일그러진 일상을 주목하고 있다.

취미

아이가 잘 노는 집

주디스 윌슨/아트디온사람들

집 가꾸기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영국인들의 간단하면서도 아이가 가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테리어 비법을 소개한다. 또 정리정돈하는 습관부터 독립심을 가르치는 노하우를 통해 엄마는 편하고 아이는 행복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전달한다.

정치

아마겟돈 레터

제임스 G. 블라이트/시그마북스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진실을 말한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흐루쇼프 서기장, 그리고 쿠바의 카스트로 총리가 아무도 모르게 주고받은 은밀한 편지 43통이 독자들을 위해 실감나게 재구성되었다.

에세이

다 너

백지연/알마

유명한 앵커이자 인터뷰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저자가 그동안 눈부신 성공을 거두면서 버팀목이 되었던 자신의 삶의 철학을 우리 사회 젊은이들을 위해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담아냈다. 저자는 세상이 어떻고 내가 어떻든 결국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나'와 '너' 사이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사진작가 Kenny LK의 좋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저자의 원숙한 글이 독특하게 어우러진다.

학교의 슬픔

다니엘 페낙/문학동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열등생의 고통과 오랜 교사 생활에 대한 회상이 담긴 저자의 자전적 에세이다. 저자는 열등생 교사가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교사로서의 경험은 물론 열등생, 그들의 부모들과 교사들이 느끼는 심정적 어려움과 함께 오늘날 학교의 현주소를 재치 있는 입담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소설

오솔길 끝 바다

닐 게이먼/시공사

실제와 환상이 세계를 적절히 혼합해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 상처를 극복하는 길에 대해 묘사한 '어른'들을 위한 환상 소설이다. 우연히 이웃 가족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순수를 위협받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우정을 발견하는 한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이 자란 중년 남성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심해도 좋은 '한판 승부'

어처구니 없지만 그래서 멋있는 '선수'의 삶

애태보리 씽씽 바

박상/작가정신

누구나 사회의 한 톱니바퀴로서 쉼없이 일하고 경쟁하며 살아간다.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착취하고 누군가는 착취당한다. 그렇게 삶은 힘겹고 견디기 어려운 노동의 연속이라고 대부분은 생각한다.

하지만 이 소설은 '노동'을 힘겨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승부'라고 정의하면서 '당신은 일반인인가, 선수인가'라는 다소 황당한 질문을 던진다. '선수'란 운동선수 같은 말이지만 저자에게 '단순한 투지와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멋진 승부를 펼치는 사람'을 뜻한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 모두 일반인일 수도, 혹은 선수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소설 속 주인공 신광택은 페어플레이가 펼쳐지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낙오한 소위 '잉여'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동시에 일반인과는 다르게 진지하게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승부에 몰두한 삶을 사는 선수다. 그는 누구보다 세차를 빨리 하거나 배달을 빨리 마치는 등 속도를 겨루며 남들이 보기엔 어처구니 없고 한심해 보일만큼 아무 의미도 없는 승부를 벌인다.

그러나 그의 승부가 우습지만은 않은 것은 그의 '스포츠 정신' 때문이다. 스포츠 정신이란 인간의 몸과 마음이 가진 한계를 살짝 넘어서게 해주는 의지, 동시에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속박되지 않기 위한 의지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정신으로 무장한 채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승부 자체를 즐기는 그의 모습은 자못 진지하면서도 멋있기까지 하다. 남이 보기에 너무 한심한데 막상 당사자는 또 너무 진지해서 더 한심한 이 승부 속에서 신광택은 자기계발서들이 권하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며 오히려 진정한 자기의 삶을 산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를 즐기는 것이 바로 스포츠 정신이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의 경기다. 이 경기에 참여한 이상 선수로서 스포츠 정신을 갖고 치열하게 한바탕 나만의 승부를 벌여보는 것은 어떨까.

/김혜인 기자 kjinal404@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델피 '광주'를 보면 극 중 신민아는 절제된 다도를 완벽히 연기한다. 다소 번거롭다 싶을 정도로 수차례 물을 따르고, 차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다. 극적인 연출이나 대사가 없음에도 관객들은 여주인공의 손짓 하나하나에 몰입한다. 느리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이었다. 타이베이 마오콩 지역은 일찍이 차를 생산해왔는데 산세에 따라 개간된 차밭이 큰 볼거리 중 하나다.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찻집과 찻집도 즐비하지만 연화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산 전체를 휘감은 가득한 차향이 우리를 취하게 할 것이다. - 꽃보다 타이베이(삼지원출판진부/엘렉스) 중 - /김학철 기자

상반기 출판시장 문학 분야 하락세

올 상반기는 인기 작가의 출간 소식이 조용했던 가운데 국내문학·해외문학의 인기가 다소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대표 김기호)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도서판매 동향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사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권 도서의 분야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국내문학과 해외문학의 분포가 지난해보다 각각 4권씩 감소했다.

분야별 도서 판매권수 점유율에서도 국내문학은 0.8%, 해외문학은 0.6% 하락했다.

유명 인기작가들이 대거 등장했던 지난해와 달리 비교적 조용했던 올해 문학 시장의 분위기가 베스트셀러에도 반영된 것이다.

문학이 빠진 자리에 대신 베스트셀러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책들도 눈에 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인기로 관련 도서가 인기를 얻으며 어린이 분야 도서가 늘었다. 또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테크 도서를 찾는 독자들이 늘면서 관련 도서들도 증가했다. 특히 인기 파워블로거의 육아법 관련 도서가 6권이 들어가는 등 가정 생활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최혜인 기자

벤츠를 가장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은?

화제의 책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

최성락/어빈트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 혹은 학자들은 소위 성공학이나 처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자기계발서를 읽지 말라고 한다. 다양한 분야의 자기계발서가 존재하지만 아무나 쓸 수 있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해 참고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비판과 타박이 과연 정당할까.

저자는 책을 통해 이런 비판에 대한 답을 정리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자기계발서를 읽고 얻은 경험을 통해서 말이다.

그가 가장 먼저 깨달은 교훈은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라', '꿈을 종이에 적어라'를 행동으로 옮겼다.

우선 '벤츠 구입하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살 수 있다는 의지를 담아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종이에 꿈을 적은 후 2년 만에 벤츠를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결국 차를 손에 넣게 된다.

이처럼 자기계발서의 내용은 현실에도 적용 가능한 소중한 얘기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것뿐이다.

이에 책은 자기계발서를 제대로 읽는 방법과 읽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적 노하우,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말하고 있다. 벤츠를 가장 빠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나보자.

/윤혜윤 기자

무대서 19년… 뮤지컬 '행복 전도사'

뮤지컬 배우 이건명(42)은 운명론자다. 사랑도 일도 모든 것이 운명에 따라 흐른다고 믿는다. 그런 그가 이번에 맞닥뜨린 운명은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8월 3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다. 올 상반기 국내 창작 뮤지컬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호평을 받은 '프랑켄슈타인'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연출가 왕용범과 다시 의기투합했다.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의 칼튼 역

이건명

◆ '두 도시 이야기' 선택한 이유는

이전도 '프랑켄슈타인'에서 보여준 연기가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천재지만 강한 트라우마를 지닌 박사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피비린내 나는 격투장의 주인이자 냉혹하고 욕심 많은 자크. 달라도 너무 다른 1인2역을 감쪽같이 연기했다.

이번엔 18세기 영국과 프랑스 파리에서 염세주의자로 술로 세월을 보내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목숨까지 바친 변호사 시드니 칼튼 역을 맡았다. 그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원작인 이 작품에서 한 남자의 숭고한 사랑을 전한다.

"작품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제가 행복할 수 있느냐 이죠. 그리고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도 선택하죠. '두 도시 이야기'는 자유·평등·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어 출연했어요. 요즘처럼 어지러운 정국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 '두 도시 이야기'는 다른 때보다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왕 연출가의 차기작이라는 점에서다. 왕 연출가와 이건명은 일본에 뮤지컬 한류 열풍을 일으킨 삼총사 '잭 더 리퍼'와 최근 막내린 '프랑켄슈타인' 등 손 잡은 작품마다 대박을 일궜다.

"왕 연출자와는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해요. 그는 원제의 재조립을 상당히 잘 해요. '프랑켄슈타인'을 3일 만에 전혀 다른 작품으로 재탄생시켰죠. 이번 '두 도시 이야기'도 이전 버전과 비교해 분량을 20분 이상 줄이고 순서를 바꾸는 등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 19년간 무대에 선 이유는

올해로 19년간 무대에 섰다. 이

배우… 여전한 긴장과 설렘 봉사는 나비효과의 힘 있어

술적 감성을 지닌 어머니의 목소리가 멋진 아버지의 끼와 능력을 물려받은 천상 뮤지컬 배우다. 그러나 19년간이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타고난 능력 때문이 아닌 뮤지컬배우로서의 삶에 행복을 느껴서였다.

이건명은 아직도 무대에 설 때마다 떨린다. "예전에 '19 그리고 80'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박정자 선배님과 한 무대에 선 적이 있었어요. 그 때 박 선배님이 첫 공연을 앞두고 무대 뒤에서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런 불안과 설렘이 없다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는 자선 콘서트를 통해 행복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가수 션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원의 행복'에 참여했고, 올해부터는 10여 명의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소년원 청소년을 돕는 '후 엠 아이'의 MC를 맡고 있다.

그는 봉사가 나비효과와 같은 힘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처음 참여한 계기는 우연이었지만 한 번 했더니 다른 곳에서 계속 제의를 받았다. 얼마 전에는 다문화 가정을 돕는 행사의 MC를 맡았다. 요새는 미혼모를 돕는 손미나 전 아나운서와 힘을 합쳐 미혼모와 소년원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선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봉사를 해보니 남보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더라고요. 자선 콘서트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인 곳이잖아요. 그들이 박수를 쳐주면 따뜻함을 넘어서 뜨거움이 느껴져요."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정문혁기자 디자인/원승희

"수입 금지 약인줄 몰랐다"

양현석, 박봄 마약 밀수입 논란 해명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룹 2NE1 박봄(사진)의 마약 밀수입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양 대표는 1일 공식 블로그에 "박봄은 4년 전까지 미국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해왔다"며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미국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박봄의 지난 몇 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조사 과정에 모두 제출했고 정황과 증거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상식적으로 어머니와 할머니가 딸과 손녀에게 마약을 구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요즘 세상에 대부분의 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약의 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읽고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나"며 "박봄의 경우 미국에서 몇 년간 먹던 약이 국내에 없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그것이 수입 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4년 전 조사 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국내 대학병원에서 다른 약으로 대체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은 박봄이 2010년 4월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암페타민 80여정을 반입하려한 혐의로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으나 치료 목적으로 들여온 정황이 확인돼 입건유예 조치됐다고 이날 밝혔다.

/윤효정기자 [illegible]

명곡 다시 부르기 열풍

아이유·신혜성·김건모 리메이크 앨범…아날로그 감성 자극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요즘 가요계에는 '명곡 다시 부르기'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히트했던 인기곡을 재해석한 리메이크 앨범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아이유가 발표한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에는 김창완이 멤버로 있는 밴드 산울림이 1984년 발표한 명곡 '너의 의미'와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 김완선의 '나 홀로 뜰 앞에서' 등이 수록돼 있다. (※ 일부 판독 불확실)

'꽃갈피'는 발표 직후 대다수 음원사이트 정상을 차지했고 아이유는 이 여세를 몰아 '꽃갈피'를 한정판 LP로 발표해 올드팬들의 향수를 자극할 계획이다.

한정판 LP에는 80년대에 발표된 모든 가요 앨범에 의무적으로 실어야 했던 이른바 '건전 가요'로 자주 사용된 '어허야 둥기둥기'를 추가 수록했다. 담서의 기능적인 배경보다는 기성세대와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음악적인 가치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 바통은 신화 신혜성이 이어받았다. 신혜성은 내년 솔로데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지난 노래들을 새로운 감성으로 리메이크한다. 그 시작은 디지털 싱글 '윈스 어게인'이다.

이후 신혜성은 '부엔 까미노'와 '인형', '사랑 후에' 등을 올 연말까지 매달 재편곡해 선보일 예정이다. '부엔 까미노'는 자신의 첫 솔로 앨범 '오블리가토' 중 강수지와 함께 불러 화제를 모았던 수록곡이다. '인형'은 2001년 발매해 절친 이지훈과의 듀엣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랑 후에'는 2006년 발매된 뮤직드라마 '동화' OST 수록곡이자 린과의 듀엣곡이다.

여성 록밴드 스토리셀러(한자레나, 은영, 호박)는 신중현의 '봄비'를 리메이크했다. 스토리셀러는 그동안 강하고 직설적인 사운드의 록 음악을 주로 발표했으나, 이번 리메이크 앨범을 통해 원곡이 가진 강렬한 비애의 감성을 아련하고 촉촉한 서정성으로 재탄생시켰다.

10월에는 김건모도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건모가 2011년 13집 '자서전' 발표 이후 3년 만에 선보인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인피니트 '그 해 여름' 한번 더…

그룹 인피니트가 소극장 콘서트를 개최한다.

1일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 측은 "인피니트가 오는 8월7일부터 2주간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그 해 여름2'라는 이름으로 소극장 콘서트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해 여름2'는 지난 2012년 여름 전석 매진으로 끝난 '그 해 여름'의 브랜드 콘서트다. 대규모 체육관이나 아레나 규모의 콘서트가 아닌 소극장을 택한 이유는 팬들과 더 친밀하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다.

특히 '그 해 여름2'는 '추격자' '반전' '라스트 로미오' 로 이어지는 대표 히트곡들과 여름 분위기에 맞춰 업그레이드로 편곡한 곡들이 어우러지며 인피니트가 팬들과 함께 아웃도어 캠핑을 간 듯한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한편 '그 해 여름2'는 7일 오후 8시 팬클럽 선예매를 시작으로 9일 오후 8시 일반 예매를 한다.

/[illegible]기자

에프엑스 또 심상치 않은 변신

7일 3집 '레드라이트 발표'…3일 활동 돌입

걸그룹 에프엑스가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다.

정규 3집으로 컴백을 앞둔 에프엑스가 앨범 콘셉트를 담은 멤버별 티저 이미지를 모두 공개했다. 최근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서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비주얼을 선보인 만큼 에프엑스가 이번 무대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모은다.

에프엑스는 정규 3집 '레드 라이트' 발매를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SM타운 페이스북을 통해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가장 먼저 베일을 벗은 크리스탈은 금발 머리로 변신, 진한 스모키 화장으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이어 공개된 설리 역시 긴 생머리에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기존의 귀여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한층 성숙해진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해 기대를 높였다.

빅토리아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아련한 감성을 전달했다. 빅토리아는 긴 생머리를 늘어트린 여성스러운 티저 이미

에프엑스 티저 이미지. 왼쪽부터 크리스탈 설리 빅토리아 루나, 엠버.

지와 함께 단발머리로 변신한 모습을 공개하며 색다른 매력을 강조했다.

루나 역시 강렬한 스모키 화장으로 카리스마를 드러냈다. 카리스마 단발머리 스타일은 물론, 망사 스타킹 등을 활용해 오묘한 매력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엠버는 검정색 안대로 한쪽 눈을 가리고 강한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한편 에프엑스는 3일 방송되는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4일 KBS2 '뮤직뱅크', 5일 MBC '쇼! 음악중심', 6일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곡 무대를 공개한다. 앨범은 7일 온·오프라인에 공개된다.

/[illegible]기자

tvN 금토드라마
tvN
연애 말고 결혼
남 일인 듯 남 일 아닌
밀당 전문 로맨스
한그루 | 연우진 | 정진운 | 한선화 | 허정민 | 윤소희
7/4 [금] 저녁 8시 40분 첫 방송

‘비정규직 여직원’ 로코 숨은 공식

<로맨틱 코미디>

‘고교처세왕’ 이하나·‘운명처럼…’ 장나라 신데렐라 스토리에 한국 사회 현실 녹여내

로맨틱 코미디에 등장하는 흔한 설정 중 하나가 신데렐라 스토리다. '왕자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같은 이야기가 완성되기 위해선 여자 주인공이 남자주인공에 비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과거 동화 속 신데렐라가 계모의 구박을 받는 아가씨였다면 2014년 한국 드라마 속 신데렐라는 비정규직 평범녀다.

tvN 월화드라마 '고교처세왕'은 고교 아이스하키부 선수 이민석(서인국)이 형 대신 위장 취업한 기업에서 비정규직 어시윈 정수영(이하나)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다. 정수영은 부푼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왔지만 '빵빵한 스펙'이 없어 2년째 계약직 꼬리를 떼지 못한 채 적은 월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아가씨다.

그런 정수영이 짝사랑하는 사람은 프로젝트 본부장 유진우(이수혁)로 오를 수 없는 나무같은 존재다. 하지만 이민석이 정수영을 좋아하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유진우는 자신의 라이벌인 이민석이 정수영을 좋아한단 사실을 알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잘난 두 남자가 평범한 한 여자를 두고 다툼하는 삼각관계는 로맨스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설정이다.

장혁과 장나라의 재회로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MBC 새 수목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다. 이야기는 이름도 외모도 학벌도 평범한 김미영(장나라)이 마카오 여행에서 만난 재벌 3세 이건(장혁)과 실수로 보낸 하룻밤으로 임신을 하며 시작된다.

연애 경험이 전무한 모태솔로 김

tvN 월화드라마 '고교처세왕' /CJ E&M

MBC 수목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 /MBC

미영이 외모부터 재력까지 모두 갖추고 배려심까지 깊은 완벽남 이건과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코드로 현실에선 볼 수 없는 판타지에 가깝다. 또 정수영과 김미영은 촌스러운 패션과 돋보기 같은 안경을 쓰는 점까지 흡사하다. 이 역시 여자 주인공의 드라마틱한 변신이 필수인 신데렐라 스토리에 필요한 요소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다. 영화 '노팅힐'도 남녀가 뒤바뀌었을 뿐 사회적 위치가 다른 두 사람이 역경을 딛고 사랑에 빠진다는 점은 같다"며 "계층이다 빈부격차를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를 그릴 때 과거엔 여자 주인공이 단순히 가난한 정도로만 그렸겠다면 최근 자주 볼 수 있는 계약직 설정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엔 결혼이 엔딩이었지만 지금은 여성이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간다. 단순한 사랑타령에서 벗어나 사회적 성공을 바라는 현대 여성의 욕구가 녹아든 것"이라며 "백마 탄 왕자님과의 로맨스는 주요 시청층인 젊은 여성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여주인공이 계약직이라는 설정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영화 '해무'의 김윤석, 김상호, 유승목, 이희준, 박유천, 한예리, 심성보 감독(왼쪽부터) /연합뉴스

“박유천, 온실 도련님 아니야”

김윤석 '해무' 공연 소감… 연기 태도 칭찬

JYJ의 박유천이 스크린 데뷔를 앞둔 소감을 털어놓았다.

영화 '해무'에서 막내 선원 동식 역을 연기한 박유천은 1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무조건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고 싶었다"고 이번 영화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도 많이 긴장된다. 티저가 얼마 전 공개되고 나서 긴장되고 떨려서 영화 촬영 후 개봉하기까지 이런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저유 느꼈다"며 "확실히 드라마에 출연할 때와 많이 다르다. 촬영 당시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에 함께 출연한 김윤석은 "유천 군이 나이에 비해 세상 경험이 많더라. 온실에서 곱게 자란 도련님이 아니더라. 맨(MAN)이더라"라고 박유천의 남자다운 면을 언급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연기를 대하는 자세, 공동 작업에 대한 자세가 잘 돼 있다. 이 배우는 오래오래 연기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점점 커가면서 발전도 잘 할 것 같다"고 칭찬했다.

김윤석은 또 "그런데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 갔다 오면 더 잘 할 거다"고 말했고, 박유천은 "오늘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김윤석 선배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직 안 갔느냐, 언제 가느냐?'였다"고 맞받아 웃음을 자아냈다.

다음달 13일 개봉하는 '해무'는 13년 전 '코리안 드림'을 품고 목숨을 건 밀입국을 시도하던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밀항선에서 질식사한 뒤 수장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봉준호 감독이 처음으로 제작한 작품이며 '살인의 추억'의 시나리오를 쓴 심성보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황순호기자 [illegible]

‘굿 닥터 이방인’ 착한 의학 드라마

역경 극복 마음 따뜻한 의사 그린 차별화된 메디컬물

대부분의 국내 의학 드라마는 마음 따뜻한 의사의 모습을 그린다. 이는 현실에서 의사를 보는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반증이다.

현실 속 의사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냉철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병원이 기업화되다 보니 생명과 이윤을 두고 저울질하기도 한다. 의학 드라마는 이 같은 영리화된 의사의 반대편에 본질에 충실한 의료인을 등장시켜 '진정한 의사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방영 중인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과 지난해 10월 종영한 드라마 '굿닥터'는 대표적인 착한 의학드라마다.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이 열악하다. '닥터 이방인'의 박훈(이종석)은 평양의대출신이다. 천재 의사지만 이방인으로 취급 받는다. '굿닥터'의 박시온(주원)은 자폐나 지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특정 분야에 천재성을 보이는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다. 자폐 3급의 레지던트다. 두 사람 모두 환자와 의사에게 배척된다.

그러나 유능한 능력을 지녔다. 박훈은 손만 대도 신체의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 수술 상황을 가상 시연하여 돌발 변수를 예측한다. 수술 시 칼을 써도 피가 나지 않을 정도로 손기술이 섬세하다.

KBS2 드라마 '굿닥터'

SBS 월화극 '닥터이방인' 이종석

박시온은 암기력과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나다. 몸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소아과 의사인 그는 순수한 눈으로 정신연령이 비슷한 어린 환자와 소통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한다.

'닥터이방인'과 '굿닥터'는 주인공이 역경을 극복하고 진짜 의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굿닥터'의 결말은 훈훈했다. 박시온은 편견을 이겨내고 의사가 됐으며 선배 차윤서(문채원)와 연애를 시작했다. '닥터 이방인'도 비슷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진혁 PD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컬 블로 첩보라는 복합물이지만 메디컬로 보는 게 맞다"며 "이방인이 병원이라는 조직 안에서 의사로 우뚝 서는 걸 보여 줄 것이다"고 말했다.

박훈은 북한에선 생체실험을 하는 비양심적인 의사였다. 그러나 명우대병원에 입사한 후 여러 일을 겪으면서 돈과 명예보다는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의사로 성장 중이다.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에는 "현직 의사인데 많은 걸 느끼게 하는 드라마다"는 의견이 게재되기도 한다.

/장병호기자 [illegible]

전차군단·아트사커 자존심 지켰다

독일·프랑스, 알제리·나이지리아 꺾고 8강서 격돌… 미리보는 결승

독일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거센 저항을 뿌리치고 유럽 전통 강호의 자존심을 지켰다.

독일은 1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베이라히우 경기장에서 열린 알제리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16강전에서 2-1로 승리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독일은 당초 쉬운 경기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프리카의 복병 알제리를 맞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경기 초반에는 오히려 알제리가 우세했다. 알제리는 전반 16분 이슬람 슬리마니가 파우지 굴람의 크로스를 헤딩골로 연결시켰지만, 아쉽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날카로운 슛으로 독일을 압박했다.

독일은 알제리의 단단한 수비를 뚫지 못하고 중거리 슛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다. 전반 37분 메주트 외질과 전반 41분 토니 크로스, 마리오 괴체의 중거리슛은 알제리 골키퍼 라이스 엠볼히에게 막혔다.

후반 들어서 알제리는 작전을 바꿔 수비 위주의 경기로 독일을 괴롭혔다. 독일은 후반 9분 필리프 람이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강력한 슛을

독일의 안드레 쉬를레가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고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가 폴 포그바의 결승골이 터지자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때렸지만 또 엠볼히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 34분 토마스 뮐러, 44분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의 예리한 헤딩슛 역시 엠볼히의 슈퍼세이브에 걸렸다.

그러나 엠볼히의 선방쇼는 독일의 변칙 슛에 막을 내렸다. 독일은 연장 전반 2분 뮐러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안드레 쉬를레가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뒤꿈치로 살짝 건드린 슛으로 선취점을 얻었다.

기세를 올린 독일은 연장 후반 14분 외질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강슛으로 쐐기골을 터뜨렸다. 알제리는 경기 종료 직전 압델무멘 자부가 만회골을 넣는데 만족해야 했다.

프랑스는 1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마네가린샤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전에서 나이지리아에 2-0 승리를 거뒀다. 프랑스는 1998년 이후 16년 만의 월드컵 우승 목표를 유지하게 됐다.

초반 주도권은 나이지리아가 잡았다. 전반 19분 이매뉴얼 에메니케가 아메드 무사의 낮은 크로스를 골로 연결시켰지만 아쉽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전반 22분 프랑스의 폴 포그바가 마티외 발뷔에나의 크로스를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발리 슛으로 때렸지만 나이지리아 골키퍼 빈센트 에니에아마의 선방에 막혔다.

나이지리아의 강력한 수비에 막혀 좀처럼 경기 실마리를 풀지 못하던 프랑스는 후반 34분 포그바의 헤딩골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프랑스는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앙투안 그리즈만의 슛을 막으려던 나이지리아 조지프 요보의 자책골로 추가점을 얻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5일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4강행을 다툰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바르셀로나, 수아레스 영입 추진

865억+산체스 '깨물기 금지' 계약조건 포함

'핵이빨' 사건으로 전 세계인의 입방아에 오른 우루과이의 루이스 수아레스(리버풀·사진)가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일 "바르셀로나가 8000만 파운드(약 1380억원)를 들여 이번 주 안에 수아레스의 영입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리버풀은 수아레스의 이적료로 8000만 파운드를 요구했고, 5000만 파운드(약 865억원)만을 책정한 바르셀로나는 리버풀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3000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핵심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를 보낼 계획이다.

수아레스는 지난달 25일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탈리아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어깨를 깨물어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와 4개월간 축구 활동 금지 징계를 받았다. 바르셀로나는 이와 관련해 수아레스를 구명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러는 "바르셀로나가 수아레스의 징계를 줄이고자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했고, 수아레스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징계를 항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바르셀로나 구단주가 이번 협상을 추진하면서 수아레스에게 앞으로 상대 선수를 깨물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경기장 안팎에서 지켜야 할 각종 행동을 계약서에 포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코소보의 프로팀인 하이잘리아FC는 코소보가 FIFA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와 상관없이 수아레스가 뛸 수 있게 그를 4개월간 단기 임대하겠다는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순호기자

카메룬 승부조작 의혹 조사착수

카메룬 축구 대표팀 /AP뉴시스

월드컵 이모저모

카메룬 축구연맹이 자국 대표팀이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카메룬 축구연맹은 윤리위원회에 자국 대표팀의 승부 조작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카메룬의 승부조작 의혹은 지난 18일 한 독일 언론에서 불거졌다. 독일 매체는 18일 크로아티아와 카메룬의 대회 A조 조별리그에 베팅한 싱가포르인이 경기 점수를 정확하게 맞췄다고 보도했다. 이 경기에서 카메룬은 0-4로 대패했다. 여기에 이 싱가포르인은 전반전에 카메룬 선수가 1명이 퇴장당할 것도 맞췄다고 덧붙였다. 이 경기에서는 전반 40분 알렉스 송(바르셀로나)이 팔꿈치로 마리오 만주키치(바이에른 뮌헨)의 등을 쳐 퇴장당했다.

◆ 그리스 대표팀 '보너스 반납'

그리스 대표팀 선수들이 월드컵 보너스를 모두 반납했다. 대신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훈련 센터를 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크 리포터 등 그리스 언론은 자국 선수들이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사상 첫 16강 진출을 일궈낸 뒤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에게 "우리는 추가 보너스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지를 마련해 국가대표팀의 거처가 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 네덜란드 항공사 '막사행위'

네덜란드 항공사가 자국 승리에 들떠 회사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말았다. 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대표팀이 본선 16강전에서 멕시코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자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잘 가, 친구들'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 글귀는 멕시코인들을 공산여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멕시코의 배우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당신네 더러운 비행기를 다시는 타지 않겠다"며 욕설이 섞인 답변을 남겼다. KLM은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10만 명 이상이 그 글을 리트윗했고, 해당 항공사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성윤기자 ysw@

인천AG 개·폐막식 베일 벗었다

고은 헌시·조수미 주제가 싸이 축하공연
빅뱅·엑소·씨엔블루 등 K팝 스타 총출동

45억 아시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윤곽이 드러났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1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폐회식 내용과 출연진, 연출진을 공개했다.

대회 개·폐회식은 이미 공개된 대로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전체 주제 아래서 구성된다. 개회식은 '아시아의 미래를 만나다', 폐회식은 '아시아는 이제 인천을 기억할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잔치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다.

9월 19일 오후 6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고은 시인의 헌사인 '아시아드의 노래'에 곡을 붙인 노래를 섞어가 조수미와 인천시민 합창단이 부르는 공식 행사로 시작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도 감동을 안긴 바 있는 '굴렁쇠 소년'의 등장과 함께 무대가 전환돼 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나는 내용의 공연으로 이어진다.

이후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선수·심판 대표의 선서까지 공식 행사가 진행된다.

성화가 점화되고 가수 싸이가 불꽃놀이 속에서 축하 공연을 펼친 뒤 선수단이 퇴장하며 개회식의 막이 내린다.

16일간의 열전이 끝나고 10월 4일 오후 6시 열리는 폐회식은 아시아라는 이름 아래 추억을 만들고 친구가 된 이들이 대회를 기억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조직위는 문화 공연으로 태권도와 전통무용 등 한국의 전통 예술을 준비했다. 이후 공식 행사에서는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배경으로 국기와 선수단이 입장하고 개회 연설과 폐회 선언, 대회기 이양, 차기개최국 문화 공연이 이어진다.

김영수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출연진이 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화가 꺼지면 한류 가수들의 축하공연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당일 공연에는 싸이와 빅뱅, 엑소, 씨엔블루 등 한류스타들도 다수 참여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개·폐막식은 임권택 감독이 총감독, 장진 감독이 총연출을 맡아 진행된다.

조직위는 7월부터 본격적인 연습과 시설 설치에 돌입해 D-30일께 제작발표회를 연고, 9월에 최종 리허설과 모의 개회식을 치르며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성호기자 ysa@metroseoul.co.kr

인터리그 부진 탈출+10승 '조준'

류현진 3일 클리블랜드전 선두 사수 임무도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올 시즌 처음으로 인터리그에 등판한다.

류현진은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클리블랜드는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3위를 기록 중이며, 류현진은 이날 10승에 다시 도전한다. 올 시즌 내셔널리그 소속 팀들을 15차례 상대해 9승 4패 평균자책점 3.12를 기록했다.

지난해 다섯 차례 인터리그 경기에 나선 류현진은 5월 29일 L.A 에인절스를 상대로 9이닝 2피안타 무실점하며 메이저리그 데뷔 첫 완봉승을 거뒀다. 또 7월 23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경기에서는 5⅓이닝 5피안타 4실점을 기록하며 8승째를 올렸다.

그러나 다른 3경기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4월 21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원정경기에서 홈런 2개를 맞고 6이닝 8피안타 5실점으로 부진했다. 6월 20일 뉴욕 양키스와 원정경기에서는 6이닝 5피안타 3실점 했지만 상대 선발 일본인 투수 구로다 히로키(6⅔이닝 8피안타 2실점)에 판정패했다. 8월 25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에서도 5이닝 4피안타 5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지난해 인터리그 성적은 2승 2패 평균자책점 4.60이었다. 지난해 인터리그에서의 부진을 씻고 류현진은 올 시즌 첫 경기부터 징크스를 날리고 2년 연속 두 자리 승수를 달성함과 동시에 노린다.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한 달 늦은 8월 3일 10승째를 거뒀다.

또 이날 경기에서는 상승세를 달리는 다저스의 선두 굳히기를 위해서도 승리가 필요하다. 다저스는 1일 클리블랜드에 1-0으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렸다. 이날 경기가 없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제치고 66일 만에 서부지구 1위를 되찾았다.

다저스는 지난달 9일 샌프란시스코에 9.5게임 차까지 뒤졌지만 이후 15승 6패를 기록했다. 이 기간 샌프란시스코는 4승 15패에 그쳤다. 부상에 시달리던 다저스 마운드는 클레이턴 커쇼(9승 2패), 잭 그레인키(10승 4패), 류현진(9승 4패), 조시 베킷(5승 4패)의 탄탄한 선발 체제를 완성했고, 5선발 댄 하렌도 호투하고 있다. 하렌은 1일 7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8승(4패)째를 따냈다.

/유순호기자 [illegible]

윤석민 부상 복귀 시점 불투명

어깨 정밀 검진차 볼티모어 이동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트리플A 노포크 타이즈에서 뛰는 윤석민(28·사진)의 부상 복귀 시점이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컴캐스트 스포츠넷 볼티모어는 1일 "윤석민이 볼티모어로 이동해 팀 주치의 마이클 제이콘스에게 어깨 정밀 검진을 받는다"고 전했다. 윤석민은 지난달 22일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피츠버그 파이리츠 산하)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6회에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 노포크는 다음날(6월 23일) 윤석민을 7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

윤석민은 지난달 30일 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볼티모어로 이동해 정밀 검진을 받기로 했다.

윤석민은 올 시즌 트리플A에서 15경기에 선발 등판해 3승 7패 평균자책점 5.76을 기록했다. 볼티모어는 버드 노리스를 제외한 4명의 선발이 모두 평균자책점 4점대를 기록 중이라 트리플A에서 선발 요원을 찾고 있다.

시범경기에서 윤석민과 경쟁하던 케빈 가우스먼은 다섯 차례 메이저리그 선발 등판 기회를 잡았고 T.J. 맥팔랜드는 꾸준히 "메이저리그 입성이 가능한 트리플A 투수"로 지목됐다.

윤석민은 10경기 연속 피홈런을 내주는 부진 속에 어깨 부상까지 겹쳐 빅리그 입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성욱기자

프로야구 전적

■ 잠실

한화	000	000	000	00	0
LG	000	000	000	01	1

△승리투수 = [illegible] △패전투수 = [illegible]

■ 목동

SK	101	011	210	7
넥센	015	000	00X	12

△승리투수 = [illegible] △패전투수 = [illegible]

■ 광주

두산	020	011	000	4
KIA	001	002	000	3

△승리투수 = [illegible] △패전투수 = [illegible]

■ 마산

SK	002	010	010	4
NC	100	030	001	5

△승리투수 = [illegible] △패전투수 = [illegible]

NCSI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한여름밤
부드러운 처음처럼
HAPPY SHAKE!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